



(주) 해태음료
포장개발팀 김영길

나의 包装觀

포장은 점차 환경 친화성 소재를 이용한 재활용(Recycle), 재사용(Reuse), 감량화(Reduse)로 나아가고 있으며, 황색골판지 사용으로 인한 환경문제, 제조원가 상승을 지향하기 위하여 원색원지만으로 제품의 디자인 개선과 신기능 골판지 개발을 통한 제품의 차별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1. 포장에 관한 나의 인식

포장업계에 입문한지 7개월째 접어든 새내기지만, 일상생활의 모든 사물에서 포장과 연관을 시키는 나 자신의 행동을 볼 때 포장인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곤 한다. 간혹 슈퍼나 길거리로 지나 가다가 특이한 포장을 발견하면 나 자신도 모르게 유심히 관찰하

는 습성이 생겼다.

포장업계에 종사하기 이전에는 포장이 단순한 기능을 한다는 생각정도였지만, 포장업계에 종사하면서 포장은 생활의 일부분으로서 자리 잡게 되었고, 비전(Vision)과 메리트(Merit)가 있는 업종으로서 인식 되었다. 또한 음료업계 종사자로서 광범위한 포장을 두루 접할 수 있다는 것에 긍지와

자부심,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음료의 궁극적 목적이 물에 가까운 즉, 물자체를 판매하는데 있다면 포장은 단순히 내용물을 마지막 보호차원의 포장기능 뿐만아니라 포장된 내용물(상품)의 질적 극대화 및 고기능, 고부가가치 창출에 있다고 본다.

2. 포장의 가치기능

생활수준 및 환경의 척도는 포장단계가 어느 궤도에 있느냐에 따라 평가될 만큼 포장의 비중이 크다. 보호기능, 보존기능 등의 기초적인 포장의 역할에서 과감히 벗어나 포장은 소비자의 구매욕구 충족, 미려한 디자인의 시각적 효과, 정보전달기능 등 다기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포장은 포장디자인, 제품과 함께 상품의 가치를 고품질화, 다변화 시킨다. 화려한 겉포장, 과대포장에서 한 차원 앞선 경량화, 단순화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어필함으로써 진정한 가치창조가 될 것이다.



▲ 해태음료 공장 사옥 전경

세계 측면에서 본 포장

선진국형 생활과 더불어 식음료의 비중이 중요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음료업계 포장 KS규격이 아직까지 정립이 안된 상태다.

통계에 의하면 매출액 대비 물류비용, 원재료비의 비중이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여 상당히 높고 교통체증을 고려한다면 경쟁력에서 낙후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제품개발 초기단계부터 펠리트 적재, 유통, 최종소비자 전달까지 원가절감(Cost Down)을 하기 위해서는 포장의 규격화가 먼저 결정되어야 한다.

포장치수를 먼저 산출하여 제품치수를 결정, 설계함으로써 유통경로상 포장에 의해 발생하는 Loss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음료포장은 골판지, 캔(Can), P.E.T.(Poly Ethylene Terephthalate), 유리병(Bottle)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골판지 원지 재료나 고지의 수입의존성, 업체의 영세성, 기술수준의 낙후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지 종류의 통일 및 단순화, 표준화, 적정 파열강도 및 포장 공간비를 산출, 고강도 골심지의 개발, Loss를 감소판리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또한 캔은 질소충전에 의한 3-Piece에서 2-Piece로, PET는 2-Piece Bottle에서 1-Piece Bottle로 유리병은 1회용 병(One-Way Bottle)에서 회수용 병(Returnable Bottle) 및 중량감소에 따른 경량화로 전환함으로써 원가절감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



해태음료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포장하는 다양한 포장용기 ▲

4. 국제 경쟁 요소로서의 포장

대량생산, 대량소비 사회의 선결조건은 대규모화,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축적이다.

원지수급에서 제작 및 골판지상자 제조까지 일괄생산 가능한 업체를 점차 늘리고 대량생산, 구축체계를 통한 국제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현 포장업체가 안고 있는 영세성, 낙후된 기술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포장전문가 양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동국전문대 및 신성전문대와 같은 포장을 전문적으로 교육시키는 대학 증설과 포장관련 단체를 통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또한 포장의 표준화 작업이 시급하다. 포장인은 동반자 의식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포장의 규격화에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포장조건에 맞는 적정원지의 도출, 원지규격 단순화, 골심지 품질개선을 통한 이중양면골판지(DW)에서 양면

골판지(SW)로의 전환, 품질의 안정성이 실현되어야만 표준화가 가능하다. 포장작업의 자동화, 원가절감, 대량생산이 가능해야 가격, 품질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2000년대 포장상

포장은 점차 환경친화성 소재를 이용한 재활용(Recycle), 재사용(Reuse), 감량(Reduce)화로 나아가고 있다. 황색골판지 사용으로 인한 환경문제, 제조원가 상승을 지향하기 위하여 원색원지만으로 고품질 디자인 표현, 바이오골판지와 같은 신기능 골판지 개발을 통한 제품차별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포장인은 포장개발과 포장비 절감을 통해 상품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야 시장변화에 능동적,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